

#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도전 문상필-조오섭 단일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당내 경선에 나선 문상필(왼쪽), 조오섭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18일부터 서울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당내 경선에 나선 문상필, 조오섭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나서 북구청장 선거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 후보와 조 후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2곳에 의뢰해 18~20일 사흘간 두 후보를 상대로 북구청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다. 일반 전화여론조사 방식이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같은당 김동찬 의원과 3자 단일화를 논의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김 의원은 시의원 선거로 U턴해 최근 북구5 선거구에 단

수공천돼 6월 본선거로 직행하게 됐다.

문 후보와 조 후보의 단일화는 일찌감치 예상됐다. 광주 동신고 동문으로, 나란히 재선 시의원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9일, 조 후보는 27일 각각 의원직을 사퇴했다.

조 후보는 북구2(우산, 문흥1·2), 문 후보는 바로 옆 북구3(풍향, 두암1·2·3, 문화, 석곡)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전형적인 풀뿌리 지방의원으로, 학생운동권 출신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두 선거구 인구를 더하면 14만 1000명으로, 북구 전체 인구의 32%

에서는 문, 조 후보를 비롯, 문인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상훈 전 북구의회 의장이 경선 4파전을 치르고 있고 민주당계당에서는 이은방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북구청장 선거는 한때 10여 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현재는 5명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관료 대 정치인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지 흥미진진한 가운데 후보간 연대너지와 광역역 이전, 구도심재생 공약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얻을 지가 관전포인트다. 또 국회의원 2석 모두 야당인 민주당화

## 내일까지 여론조사 거쳐 단일후보 확정

고교 동문·재선 시의원·운동권 공통점  
민주 vs 민평 관료 vs 정치인 초미 관심

를 차지해 구청장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양자 단일화가 현실화될 경우 당내 또 다른 그룹의 단일화 여부도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4명이 경선에 나선 가운데 컷오프 결과 몇 명, 또 누가 살아 남느냐에 따라 추가 단일화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북구청장 선거에는 민주당

당이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과 평화당간 여야 대결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13~17일 후보자 면접, 26~27일 케이블 TV 토론회를 거쳐 5월 3~4일 관리당원 투표 50% +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르면 다음달 5~8일에 5개 구청장 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댓글공작 전면 수사 촉구하는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공작 규탄 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댓글공작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바른미래당 광주 광역·기초의원 공천 21~25일 접수

### 공모 대상, 광주시 광역·기초의원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5일 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광주시 광역·기초의원으로, 신청 방법은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공식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안된다.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으로, 신청 당시 당원이거나 하며,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청년정책토론회에서 우승한 청년후보에게 광역의원 비례대표 순번 1번으로 배정할 예정이며, 북구 기초의원 비례대표도 청년정책 토론 배틀에서 우승한 청년에게 비례대표 순번 1번을 배정할 예정이다.

뉴스스

##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5월18일 지방공휴일 지정" 제안

### "5·18정신, 계승·발전에 힘 모아야"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8일 "5월18일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광주 5월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이 요구한 지방공휴일 지정 요청을 받아들여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방공휴일은 지역별로 특별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일로

지정해 공휴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주도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는 제주 4·3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와 국가사무에 혼란을 준다는 승인이 없었지만 제주도의회는 재의를 거쳐 3월 조례를 공포했다"고 말했다.

또 "인사혁신처가 다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러다 최종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4월3일은 제주도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다"며 "관련법 정비가 시작된 만큼 광주도 빠른 시일 내에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5·18광주민화운동의 계승, 발전에 힘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 "후보 구합니다"...한국당 불모지 호남 공천은?

### 후보 안 낼 가능성 일축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자유한국당은 18일 6.1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17곳 지역 중 14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아직 후보 결정 경선표를 정하지 못한 다른 당에 비하면 빠른 속도지만 당이 열세인 호남지역(광주·전북·전남) 3곳의 후보는 아직 안개속이다.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표 사무총장은 18일 뉴스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주말에도 호남에 가서 (인사들을) 좀 만났는데 시원한 답이 안 나온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홍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후보를 안 낼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일축했다. 광주시장, 전북·전남지사 등 호남지역 3곳에 대한 후보 확정은 안 됐지만 한국당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보자 출정식을 열고 공식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전통적인 한국당 열세 지역인 호남에서 한국당 후보들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득표를 15%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지역조

직세와 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선거인 만큼 섣불리 나서서 사람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은 이런상황을 고려해 초반 이번 지방선거 호남지역 출마자에게 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배정을 검토해왔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느 지적이 나왔다.

한편 한국당 광주시장에 1989년 생 양운열 청원경찰이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을 봤지만, 당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물색중이다.



지역공감 마케팅 전문기업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